

Deloitte Newsletter

2014년 6월



업계 주요 뉴스

회계, Tax, M&A 등 관련 업계의 주요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민간 주도 '한국 헤지펀드 협의회' 출범

한국 헤지펀드 협의회는 오는 7월 정식 출범을 목표로 향후 회원 모집과 규약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초대 회장엔 황성택 트러스트자산운용 대표가 사실상 내정됐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뉴욕 헤지펀드 라운드 테이블'은 교육과 헤지펀드 저변 확대를 위해 설립된 미국내 비영리 법인이고 '헤지펀드 어소시에이션'은 헤지펀드 산업의 발전과 의견 개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두 단체의 성격을 한국형 헤지펀드 정서에 맞게 벤치마킹해 접목 시킬 방침"이라며 "정식 출범 때까지 공개적으로 회원들을 모집하는 한편, 헤지펀드 관련 연간 1회 포럼이나 컨퍼런스를 비롯 헤지펀드 뉴스 전달, 교육,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기업 감사보수 인하에 회계업계 부실감사 우려 목소리

최근 세월호 참사의 배경에 청해진해운의 회계부정이 거론되는 가운데 일부 대기업들이 감사 계약권을 남용해 과도한 가격 인하에 앞장서 감사품질 저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19일 "코스피 200 지수 소속 기업 위주로 감사인 변경과 감사보수 변동상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대기업들의 감사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청년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현재 외부감사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감사계약의 주체인 기업이 투명성에 대한 의지가 높지 않다는데 있다"면서 "가격 후려치기로 감사품질을 낮아지는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감사인 지정제를 확대해 공정감사의 기틀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장사·금융사 회계법인 지정" 중소 회계법인 弱? 毒?

상장사와 금융사에 대해서도 외부감사인 지정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내 회계 감사 시장을 과점해온 '빅 4'(삼일·삼정·안진·한영)와 중소 회계법인들이 받을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회계업계는 전반적으로 감사인 지정제 확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행 자유수임제 하에서는 감사를 받는 피감기업이 칼자루를 쥐고 감사인인 회계법인을 선정한다는 점에서 회계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또 저가수임료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4대 회계법인 구도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지정제를 도입하면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자격 기준을 갖춘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맡을 가능성이 커 4대 회계법인이 크게 타격 받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 때문입니다.

'반토막 수입료' 삼정 KPMG 내막은?

5 월 중순 들어 주요 대기업들의 1 분기 보고서가 공시되면서 지난 3 월 감사인 교체 주기를 맞아 물밑경쟁이 치열했던 빅 4(삼일·삼정·안진·한영) 회계법인의 감사수입료도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업계의 이목을 끈 곳은 수입료가 43%나 깎인 삼정 KPMG 입니다. 이에 대해 삼정 KPMG 측은 "모회사와 자회사의 감사인이 통일되면 아무래도 코스트(비용)가 절감돼 가격이 낮아질 여지가 있다" 말하며 "감사수입료 인하폭이 컸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실감사를 감독해야 하는 입장인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당국이 감사시장에 어떤식으로 개입하면 이러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폐경고등 '계속기업 불확실' 왜 따로 공개안되나

기업의 존폐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회계상 경고 신호가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특기사항에 기재하는 계속기업 불확실성 의견이 관계당국의 무관심 속에 실효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25 일 복수의 회계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회계사들은 감사의견이 적정하지만 기업의 존속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특기사항에 '계속 기업 불확실성'을 기재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따로 공지가 되지 않아 3000 여개가 넘는 감사보고서를 핸드크래핑(일일이 손으로 조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A 리그테이블] 2014 년 5 월 회계자문 순위

인베스트조선이 M&A 회계자문 딜리스트와 리그테이블을 집계한 결과 삼정은 5 월 발표기준 8 건의 거래실적을 추가했습니다. 삼정은 3000 억 원 규모 동양매직의 경영권 거래에서 인수자인 글랜우드-농협 PE 컨소시엄의 회계자문을 맡았습니다. 삼일 PwC 는 발표기준 16 건·완료기준 20 건을 기록하며 모두 1 위를 기록했고, EY 한영은 한글과컴퓨터의 MDS 테크놀로지 인수전에 참여해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경영권을 동반하지 않은 거래(Non-buyout)에서는 삼정이 발표·완료 기준 모두 1 위를 기록했고 삼일이 뒤를 이었습니다.

[M&A 리그테이블] 조(兆)단위 거래 드물어...흔들림 없는 상위권

2014 년 5 월까지 인베스트조선이 누적집계한 M&A 딜리스트와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도이치증권이 발표기준과 완료기준에서 모두 1 위를 차지했습니다. 모간스탠리 역시 발표기준 1 위를 지켜냈고 완료기준에선 2 위에 올랐습니다. 씨티글로벌마켓증권도 발표기준 3 위를 유지했지만 완료기준 순위에서는 도이치증권에 자리를 내주고 3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국내사들 가운데 삼일 PwC·삼정 KPMG·EY 한영의 약진이 돋보였습니다. 삼일 PwC 는 동양매직(3100 억 원) 매각과 한국발전기술(450 억 원) 매각 자문사로 활동했습니다. 삼정 KPMG 와 EY 한영은 삼성생명보험의 삼성자산운용 지분 취득(3950 억원)에 참여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4 대 회계법인이 발표기준 6 위~9 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재무제표 대리작성 관행 근절" 공인회계사회 신고센터 설립

지난 6 월 15 일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최근 임원 회의에서 피감법인이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부탁할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공인회계사회 내에 설립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7~8 월 중에 센터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제표 대리작성 관행은 부실 감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감사인이 피감법인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는 것은 시험 감독관이 학생의 시험지를 대신 작성해주는 것과 같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3 월 재무제표 작성 시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금융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문서로 하도록 하고, 제출 내역을 기록 및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마켓인사이트]'분식회계' 기업 줄줄이 철폐 예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12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사전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를 열어 효성의 분식회계 제재안을 심의, 효성이 외환위기 직후 대규모 분식을 저질렀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분식회계 최대 과징금인 20억 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3년간 감사인 지정 등 중징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효성의 외부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2008~2013년)과 삼정회계법인(2005~2007년)도 해당 회사 감사제한 1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등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감사인별 과실 정도의 크기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효성 제재안건은 조만간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차례로 올려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감사보수 정상화에 최선 다할 것

6월 1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60회 정기총회에서 강성원(66)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의 연임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선출부회장에 최문원(대명회계법인), 감사에 이용모(삼덕회계법인)가 선출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임기 2년간 감사 보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고 "회계 투명성이 높아져야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도 낮아진다"며 "기업들이 감사 보수 인상을 단지 불필요한 비용 증가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 4층~12층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Tel. 02-6676-1000 Fax. 02-6674-2114 | 딜로이트 컨설팅 Tel. 02-6676-3800 Fax. 02-6674-8700

© 2014.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Korea.

www.deloitte.com/kr www.facebook.com/DeloitteKorea